보석, 만다라 속으로

‘MANDALA FESTIVAL OF ART 魂’ 展

봉은사 보우당 12월 26일~2019년 1월 5일

‘루비 만다라’, 금 · 은 만다라 30여 점 첫 선

‘짐바브웨 부처님’ 등 새로운 불교미술 선보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보석과 만다라가 만났다. 석보차박물관(관장 오흥덕)은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5일까지 서울 봉은사 경내 보우당에서 ‘MANDALA FESTIVAL OF ART 魂’ 展을 개최한다.

화려함의 상징인 보석을 예술의 소재로, ‘소유’의 대상이 아닌 ‘공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불교문화와 차문화를 연구해온 오흥덕 관장이 불교미술의 만다라와 다구, 조각상 등에 보석을 접목시킨 ‘리뉴얼아트’를 선보이는 전시다.

깨달음의 신성함을 아름다운 빛으로 표현한 ‘루비만다라’, 까치호랑이 도판(도자기 판에 그린 그림), 루비칠보 장식 은다구, 사파이어 콜라보 조각 등이 소개된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금과 은으로 그린 만다라 30여 점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오 관장은 ‘인내’와 ‘정수’라는 주제로 전시를 준비했다. 오랜 시간을 거쳐 탄생하는 보석과 법의 정수인 불교에서 시작했다. 보석을 부의 척도나 사치의 대상이 아닌, 아름다움의 근원으로 바라보았고, 새로운 가치의 보석을 깨달음의 정수로 수행하며 그린 그림 만다라, 생명력을 지닌 짐바브웨 조각상, 수많은 담금질과 두드림으로 탄생한 은다구와 다기,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까치호랑이 등에 접목했다.

▲티베트 스님들의 수행 공력을 오롯이 간직한 만다라와 영롱한 보석의 만남으로 탄생한 새로운 만다라 ‘루비 만다라’는 만다라의 신성함에 보석의 아름다움을 더해 더욱 깊은 만다라의 세계를 보여준다.

▲‘검은 영혼의 신비’로 불리는 짐바브웨 조각상은 루비와 만나 새로운 부처로 탄생했다. 조각상의 주인인 아프리카 쇼나 부족은 돌에 영혼이 있다고 믿어왔으며, 조각물을 돌 안에 깃든 영혼과의 교감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에서 탄생한 조각상에 루비를 더해 탄생한 ‘짐바브웨 부처님’은 기존의 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불상으로, 종교적 상징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현대적 불교미술로서의 의미를 함께 보여준다.



깨달음의 신성함을 표현한 ‘루비만다라’



짐바브웨 부처님1



짐바브웨 부처님2

▲우리에게 친근한 까치호랑이 도판에서는 호랑이의 두 눈에 커다란 사파이어를 넣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호랑이는 사냥을 나갈 때 눈에는 등잔만한 불을 켜고 산천이 흔들리도록 포효했다는 옛말에서 비롯됐다. 우리 민족의 상징인 호랑이를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국민 모두의 안녕과 성공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수많은 담금질과 두드림,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통해 마침내 완성된 은다구에는 보석이 면류관처럼 올려져있다. 은은 예로부터 몸에 지니면 심신이 안정되며, 나쁜 기운을 쫓아 몸을 가볍게 한다고 해서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다. 이러한 은을 소재로 한 다기 컬렉션은 은빛 찬란한 다기와 빛나는 보석의 융합으로 한층 더 세련미를 더하며, 미술로서도 빛난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오 관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소유’가 아닌 ‘공유’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대중의 삶에 만다라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 궁극의 만다라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수많은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그 속에서 참 나를 찾아간다는 게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새로운 불교미술을 통해 알리고 싶었다. 물질만능시대에 화려한 유혹에 끌려 스스로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공유와 공존의 필요성을 알림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픈 소망에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031)3218-4800

사우디아라비아서 만나는 한국 역사와 문화

중동 최초의 대규모 한국문화 특별전

‘The Enchanting Journey to Korean Civilization’

‘한국문화로 가는 매혹의 여정’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립박물관

12월 19일~2019년 3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2월 19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국가유산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특별전 ‘The Enchanting Journey to Korean Civilization(한국문화로 가는 매혹의 여정)’을 개최한다.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우디 관광국가유산위원회와 함께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이에 대한 교환전시로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in Riyadh)에서 개최한다. 특별전은 중동 지역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최초의 특별전이기도 하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이다. 신라시대 ‘서봉총 금관(보물 제399호)’ 등 경주 출토품을 비롯하여 범종, 향완 등 다양한 불교 관련 의식구 등 한국문화의 특징을 대표하는 문화재 총 260건 557점을 선보인다. 박재완 기자



백제 건축은? ‘검이불루 화이불치’

특별전 ‘검이불루 화이불치 백제의 집’

한성백제박물관 12월 21일~2019년 2월 24일

백제시대의 의 · 식 · 주를 조명하고 있는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이인숙)이 12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4일까지 특별전 ‘검이불루 화이불치 백제의 집’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2년 4월 개관기념으로 백제 사람들의 의복문화를 조명했던 특별전 ‘백제의 맵시’와 같은 해 겨울 백제 사람들의 먹거리와 식생활을 주제로 했던 ‘백제의 맛’에 이은 특별전이다. 백제시대의 주거와 건축문화를 집약한 발굴유물 550여 점을 전시한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편에는 백제 궁궐의 건축미를 위와 같이 적고 있는데, 백제 건축문화의 미의식을 대변하는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는 〈삼국사기〉가 적고 있는 ‘검이불루 화이불치’의 백제건축을 조명하는 전시로 백제의 왕도인 한성(서울), 웅진(공주), 사비(부여)와 왕궁이 있었던 금마저(익산)의 주거지와 건물지가 소개된다. 백제 왕도는 백제 최고의 건축기술과 양식이 집중된 핵심 지역이다. 따라서 백제 왕도를 통해 백제 사람들의 주거와 건축문화를 압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왕궁’이다. 왕궁은 최고 지배자인 왕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이자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정무공간이며 신성한 의례 공간이다. 서울 풍납동토성 등 백제 왕궁유적에서 발굴된 건축부재와 생활용품이 전시된다. 특히 풍납동토성 안 풍납동 197번지(구 미래마을부지)에서 발굴된 마-1호 건물지의 기와를 모아 백제 한성의 기와지붕을 연출한다.

▲2부는 ‘사원’이다. 백제는 불교가 번성했던 나라였다. 사원은 백제 건축기술과 공예문화가 집약된 백제문화의 보고(寶庫)다. 부여와 익산 지역에 소재한 유적을 중심으로 사원 건물의 기초다짐부터 지붕에 이르는 건축구조를 자세히 소개하고, 더불어 사원의 일상을 조명한다. 사원 유물 중에는 현재까지 완형이 복원된 치미(鴟尾) 중 가장 오래된 왕흥사지 치미가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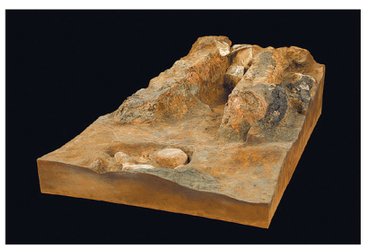
▲3부는 ‘가옥’이다. 가옥은 선사시대 이래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운 ‘움집’ 형태였다. 백제 한성기의 대표적 가옥 형태인 ‘육각형 집자리’를 재현하고, 최근 보존처리한 풍납동토성 현대연립부지 가-3호 집자리의 부뚜막을 최초 공개한다. 또한 풍납동토성 동성벽 밖에서 발굴된 우물 목부재를 전시하여 백제시대 우물을 복원해본다. 이외에도 부여 백제문화단지에 백제 건축물 재현을 전담했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이 만든 ‘능사(부여 능산리 절터)5층목탑’과 ‘천정전(백제 대형건물)’ 건축모형도 선보인다.

특별전시회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전시 연계 초청강연회가 진행된다. (02)2152-5837

박재완 기자



부여왕흥사지 치미.



서울 풍납동 토성 부뚜막.



최기영作 능사오층목탑 모형.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돌 오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iikukak.com